

창세기 연구
: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 마음 발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은복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Eun Bok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GENESIS : A DISCOVERY OF THE HEART OF GOD THROUGH GENESIS

Eun Bok Kim

Keystone Korean Baptist church, FL, USA

This paper delves deeply into the essential Christian concept of gratitude, exploring why believers should constantly give thanks to God in every aspect of their daily lives. Specifically, it highlights seven fundamental areas of gratitude that every child of God should actively practice. First, believers should give thanks to God for His magnificent work in creat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Second, they should express love and gratitude to God for His creation of humanity and for being part of His divine plan. Third, believers must show continuous gratitude for all that God provides, recognizing His mercy and abundant provision in their lives. Fourth, there should be an acknowledgment of personal shortcomings and a sincere confession of sin, accompanied by repentance and sorrow for failing to fully love God as He deserves. Fifth, believers are called to find peace and rest in God's presence, expressing gratitude for the comfort and security He offers. Sixth, there should be an unwavering expression of gratitude for the confidence found in God's grace and the assurance of salvation. Finally, the seventh aspect is the firm belief in and gratitude for the eternal rewards that God has promised.

This paper argues that when these expressions of gratitude are applied across all human relationships, peace will naturally flourish within homes, between societies and nations, and within churches, leading to an increase in both peace and joy. The Keystone Korean Baptist Church, under the leadership of Pastor Eun Bok Kim, adopts these seven “rewards of gratitude, virtue, and good works” as part of their confession of faith. Their goal is to pursue the eternal rewards promised by God, as recorded by the Apostle Paul in Philippians 3:14, Acts 20:24, and 2 Timothy 4:7-8, through a ministry grounded in love for God and for one’s neighbor.

국문초록

김 은 복

키스톤 한인 침례교회, 템파, 플로리다, 미국

이 논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감사의 개념을 깊이 탐구하며, 모든 신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조명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감사의 영역이 있음을 강조한다. 첫 번째로, 신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창조적 섭리에 감탄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자비와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슬픔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며 감사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될 때, 가정 안에서의 평화, 사회와 국가 간의 평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장한다. 특히, 은복 김 목사가 섬기고 있는 Keystone 한인 침례교회는 이러한 일곱 가지 “감사의 보상,

덕, 그리고 선한 행위”를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14, 사도행전 20:24, 디모데 후서 4:7-8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연구 배경 및 목적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2
C. 선행 연구 검토	5
II. 이론적 배경	9
A. 창세기의 주제와 개요	9
B. 창세기의 신학적 의의	13
C. 창세기 해석의 역사적 흐름	15
III.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17
A.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17
B. 타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 사랑	19
C. 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한 사랑의 확장	20
D. 요셉 이야기를 통한 섭리적 사랑	21
IV. 이야기로 쓴 창세기	24
V. 현대 사회에서의 기독교적 응답	31
A. 개인적 신앙 경험의 중요성	31
B. 창세기의 현대적 적용	32
VI. 결론	35
A. 추후연구 제안	36
B. 연구의 의미와 기대효과	38

참고문헌	40
부 록	42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여정을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과정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귀례 권사님과 박옥례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응원해 준 아내 김용수 사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드루 대학의 지도 교수님들께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박사 과정을 시작할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목회 사역에 전념하느라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미주 침례회 총회를 마치고 플로리다 잭슨빌 시온 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제1기 성경 통독 렉처드 수업에서 조병호 박사님의 권면으로 드루 대학 박사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가을 학기에 비로소 이 학문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새삼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당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이미 등록한 수업과 적지 않은 수강료와 교재비로 인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논문 작성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여정 내내 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교회 공동체와
저의 아내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김 은 복

I.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세기는 단순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본질적 역할, 그리고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다룬다. 이는 현대 기독교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 환경 문제, 윤리적 딜레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는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개인적 신앙에서부터 사회 윤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랑이 현대의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을 모색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생활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자의 40년 이민 생활과 목회 경험, 그리고 최근의 암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메시지를 재해석하고, 이 메시지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특히, 창세기가 단순히 성경적 교훈이 아니라, 현실의 신앙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는 창조, 언약, 심판, 구원 등 창세기의 주요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실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창세기 주요 인물들의 삶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믿음과 순종의 모델을 제시한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3.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현대적 신앙 실천에 적용한다. 이는 이민자로서의 경험, 목회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암 투병 경험 등을 창세기의 메시지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현대 사회의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개인주의, 다문화적 도전에 창세기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창세기의 창조 신학, 언약 사상, 공동체성 등의 주제가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목회 현장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설교, 성경 공부, 상담,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목회 활동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포함한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창세기 본문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신앙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 해석학과 실천신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1. 문헌 연구: 창세기 본문에 대한 신학적, 문학적 주석을 기반으로 창세기를 해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성경 주석가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해석을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Wenham¹, Brueggemann², von Rad³ 등의 연구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이들의 연구는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 신학적 주제, 역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세기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현상학적 연구: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 신앙 생활에 적용한다. 이 연구는 특히 저자의 이민 생활과 암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Schneiders가 제안한 "경험과 텍스트의 상호작용"⁴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삶의 경험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성경 해석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탐구한다.

¹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87), 89.

² Walter Brueggemann,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51.

³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14.

⁴ Sandra M.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San Francisco: Harper, 1991), 122.

3. 사례 연구: 창세기 메시지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이는 저자의 40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회 상황에서 창세기의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이민자 교회, 다문화 교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창세기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지를 탐구한다.

4. 상호문화적 해석학: Lee의 "경계인 신학"⁵을 바탕으로, 이민자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한다. 이는 문화적 경계에 선 이민자의 경험이 성경 해석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텍스트적 범위: 창세기 1-3장과 12-50장에 중점을 두며, 창조 이야기와 족장 이야기의 주요 주제를 다룬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실현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시간적 범위: 1984년부터 2024년까지의 저자의 목회 및 이민 생활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기간 동안의 개인적 경험, 목회적 통찰,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를 창세기 해석과 연결시켜 분석한다.

3. 주제적 범위: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신앙,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주제로 다룬다. 특히 창조와 환경, 언약과 관계, 심판과 은혜, 용서와 화해 등의 주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⁵ 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3.

4. 실천적 범위: 창세기의 메시지가 개인의 신앙 생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윤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설교, 성경 공부, 상담,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실천적 영역을 포함한다.

C. 선행 연구 검토

창세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성경 해석학, 신학, 문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통찰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창세기 주석 연구: Gordon Wenham의 *Genesis 1-15* 주석은 역사-문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창세기 본문을 심층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⁶ 이 주석은 창세기 본문을 신학적, 문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Wenham은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주제를 상세히 분석하며, 특히 창조 이야기와 족장 이야기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2. 창세기의 현대적 해석: Walter Brueggemann의 *Genesis*는 창세기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연구로, 현실화의 개념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⁷ Brueggemann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 가족 관계, 정의의 문제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

3. 생태학적 해석: Norman Habel의 *The Earth Story in Genesis*는 창세기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선구적 연구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⁸ Habel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인간과 자연의

⁶ Wenham, *Genesis 1-15*, 102.

⁷ Brueggemann, *Genesis*, 67.

⁸ Norman C. Habel, *The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5.

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환경 위기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4. 포스트콜로니얼 해석: Mark Brett의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는 창세기를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타자성 문제를 다룬다.⁹ Brett의 연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현대의 문화적, 인종적 갈등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5. 개인적 경험과 성경 해석: Sandra Schneiders의 *The Revelatory Text*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성경 텍스트와 개인 경험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¹⁰ Schneiders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6. 이민자 경험과 성경 해석: Jung Young Lee의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는 이민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민자의 관점에서 창세기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¹¹ Lee의 "경계인 신학"은 문화적 경계에 선 이민자의 경험이 성경 해석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저자의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7. 언약 신학적 접근: Scott Hahn의 *Kinship by Covenant*는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¹² Hahn의 연구는 창세기의 언약 이야기들이 현대

⁹ Mark Brett,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2000), 82.

¹⁰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135.

¹¹ Lee, *Marginality*, 54.

¹² Scott Hahn, *Kinship by Covenant: A Canonical Approach to the Fulfillment of God's Saving Promis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98.

기독교인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창조 신학: John Walton 의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은 창세기 1 장을 고대 근동의 우주론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창조 이야기의 본질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¹³ Walton 의 연구는 창조 이야기가 단순한 과학적 설명이 아닌 우주의 목적과 질서에 대한 신학적 선언임을 강조하며, 이는 현대의 과학과 신앙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9. 여성신학적 접근: Phyllis Trible 의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는 창세기의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젠더 문제를 재해석한다.¹⁴ Trible 의 연구는 창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젠더 평등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0. 내러티브 신학: Terence Fretheim 의 *The Book of Genesi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는 창세기의 이야기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¹⁵ Fretheim 의 연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현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1. 창세기의 신학적 메시지와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결합하여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는 Schneiders 의 방법론을 확장하여, 이민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암 투병 경험자로서의 저자의 고유한 관점을 창세기 해석에 적용한다.

¹³ John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45.

¹⁴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90.

¹⁵ Terence E.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35.

2. 이민자 및 암 투병자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도출한다. 이는 Lee의 "경계인 신학"을 창세기 해석에 적용하는 시도로, 문화적, 존재론적 경계에 선 경험이 성경 해석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3. 창세기의 메시지가 현대 사회의 실제적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탐구한다. 이는 Brueggemann의 "현실화" 개념을 확장하여, 환경 문제, 다문화 사회의 갈등,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의 균형 등 현대적 이슈들에 창세기의 메시지를 적용한다.

4. 목회 현장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성경 해석학과 실천신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메시지가 설교, 성경 공부, 상담, 공동체 활동 등 실제 목회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5. 창세기의 주요 주제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는 창조, 언약, 심판, 구원 등의 주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창세기의 주제와 개요¹⁶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성경 전체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창조, 인간의 타락, 언약, 구원의 역사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본 논문은 창세기의 주요 주제를 분석하고, 이 주제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걸쳐 발전하며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1.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 1-2 장)

창세기의 첫 두 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창세기 1 장은 6 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서술하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질서 있고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심히 좋았다” (창세기 1:31)고 평가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질서와 도덕적 선함을 포함한다.

¹⁶ Wenham, *Genesis 1-15*, 23-2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45.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78.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01.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6), 135-137.

창세기 2 장은 인간의 창조를 더 세밀하게 묘사하며,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들의 역할을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는 이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된다.

2. 인간의 죄와 타락 (창세기 3 장)

창세기 3 장은 인간의 타락을 다룬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며,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그로 인한 책임을 강조하며, 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설명한다.

타락 이야기는 죄가 인간의 내면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며 인간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킨다. 이 이야기는 죄가 인간의 모든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창조된 질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3.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창세기 6-9 장: 노아의 홍수)

창세기 6-9 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다룬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약속하신다.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보여준다.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강조한다.

4. 아브라함과 언약의 성립 (창세기 12-25 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을 다룬다.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된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이 약속은 이후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된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은 성경 내에서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5. 야곱과 이스라엘의 탄생 (창세기 25-36 장)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야곱은 열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며,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된다.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약함을 넘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됨을 강조한다.

6.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37-50 장)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다룬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결국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하며(창 50:20),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언약,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루는 중요한 신학적 텍스트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를 제공하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지를 보여준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B. 창세기의 신학적 의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창세기의 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조 신학: 창세기 1-2 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창조 목적이 드러난다. John Walton은 이 창조 이야기를 단순한 과학적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우주 질서에 대한 신학적 선언으로 해석한다.¹⁷ 창조 신학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현대의 환경 문제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의 기초를 제공한다.

2. 언약 신학: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서술한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Scott Hahn은 이러한 언약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¹⁷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27.

주장한다.¹⁸ 언약 신학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3. 구속사적 시작: 창세기 3 장의 인간 타락 이야기는 인류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다.¹⁹ 이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4. 인간학: 창세기는 인간의 본질, 목적,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²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 생명 윤리, 환경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하나님의 성품 계시: 창세기는 창조주이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공의, 신실함 등이 창조 이야기와 족장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²¹ 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6. 세계관의 기초: 창세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를 제공한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본질과 목적, 악의 문제, 문화와 문명의 발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한다.²² 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¹⁸ Scott Hahn, *Kinship by Covenant: A Canonical Approach to the Fulfillment of God's Saving Promis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120.

¹⁹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78.

²⁰ Richard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5), 45.

²¹ Walter Brueggemann,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92.

²²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43.

C. 창세기 해석의 역사적 흐름

창세기 해석의 역사는 교회사의 흐름과 맞물려 발전해 왔다. 교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해석은 신학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왔다:

1. 초기 교부 시대: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며, 창조 이야기를 영적 실재의 상징으로 보았다.²³ 이러한 접근은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영적, 도덕적 교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7 일 창조를 인류 역사의 7 단계와 연결시켜 해석했다.

2.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세기를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영적,

도덕적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방식을 취했다.²⁴ 그는 성경의 '네 가지 의미' (문자적, 알레고리적, 도덕적, 유비적) 해석을 통해 창세기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했다. 이러한 접근은 창세기를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깊은 신학적,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로 이해하게 했다.

3. 종교 개혁 시대: 루터와 칼뱅은 창세기를 문자적,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신학적 중심을 강조했다.²⁵ 이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벗어나, 성경의 원문과 문맥을 중시하는 해석을 시도했다. 특히 칼뱅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했으며,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었다.

4. 계몽주의 시대: 이 시기에는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²³ Origen, *On First Principles*, trans. G.W. Butterworth (New York: Harper & Row, 1966), 25.

²⁴ 23.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1a, q. 1, a. 10,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1947).

²⁵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John King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52.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²⁶ 이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5. 현대 해석: 현대에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등장했다. 역사비평적 방법, 문학비평적 방법, 사회과학적 접근, 해방신학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창세기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Walter Brueggemann은 창세기의 신학적 주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²⁷ 또한, 생태신학, 여성신학, 포스트콜로니얼 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6. 포스트모던 접근: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창세기 해석에 있어 독자의 역할과 해석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독자반응비평'과 같은 방법론은 성경 본문과 현대 독자 사이의 대화를 중시하며, 창세기의 메시지가 현대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한다.²⁸

이러한 창세기 해석의 역사적 흐름은 성경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창세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각 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21 세기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의 메시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²⁶ Charles Darwin, *On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1859), 50.

²⁷ Brueggemann, *Genesis*, 103.

²⁸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178.

III.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A.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1 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을 강조한다.

Waltke 는 창세기 1 장이 단순한 창조 기록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와 목적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신학적 선언이라고 해석한다.²⁹ 창조의 질서와 다양성,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돌봄을 나타낸다.

1. 창조의 목적성: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행위임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적이며 목적지향적임을 나타낸다.³⁰

2. 창조의 다양성과 조화: 창세기 1 장은 하나님이 다양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된다.³¹

²⁹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63.

³⁰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99.

³¹ Habel, *The Earth Story in Genesis*, 87.

3.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26-27 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를 넘어 영적, 도덕적 책임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Richard Middleton 은 이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지닌다고 주장한다³¹.³²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보살핌을 넘어,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4. 안식일의 제정: 창세기 2:2-3 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넘어, 쉼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Jürgen Moltmann 은 이 안식일 제정이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³³

5. 창조의 완성에 대한 사랑: 창세기 1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창 1:31). 이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만족과 사랑을 표현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Terence Fretheim 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창조세계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석한다.³⁴

³²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53.

³³ Jürgen Moltmann, *The Theology of Hope* (New York: Harper & Row, 1967), 157.

³⁴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110.

B. 타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 장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1. 심판과 은혜의 공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창 3:16-19),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창 3:21)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신다. Henri Blocher 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해석한다.³⁵ 이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2. 원시 복음(Protoevangelium): 창세기 3:15 에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속의 약속을 주신다. 이 구절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서막을 의미한다.³⁶ Walter Kaiser Jr. 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현재의 돌봄을 넘어,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장기적 계획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³⁷

3. 카인과 아벨 이야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카인의 아벨 살해 후에도, 하나님은 카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신다(창 4:15).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극단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속됨을 보여준다. Gerhard von Rad 는 이 장면이

³⁵ Henri Blocher, *In the Beginning: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4), 75.

³⁶ Walter C. Kaiser Jr., *The Promise-Plan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2008), 62.

³⁷ Mathews, *Genesis 1-11:26*, 160.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한다.³⁸

4. 노아와 홍수 이야기: 인류의 악함으로 인해 홍수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신다. 홍수 후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창 9:8-17)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이후에도 지속되며, 더 나아가 모든 생물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준다.³⁹

C. 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한 사랑의 확장

창세기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인류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1. 노아와의 언약: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창 9:12-17). 이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계획을 상징한다.⁴⁰ Bruce Waltke 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생태학적인 차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⁴¹

2.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신다(창 12:3).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며, 믿음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될

³⁸ von Rad, *Genesis*, 115.

³⁹ Waltke, *Genesis*, 145.

⁴⁰ Paul R. Williamson, *Sealed with an Oath: Covenant in God's Unfolding Purpos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7), 130.

⁴¹ Wenham, *Genesis 1-15*, 75.

것임을 나타낸다.⁴² Paul Williamson 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⁴³

3. 이삭과 야곱을 통한 언약의 계승: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창 26:3-5)과 야곱(창 28:13-15)에게 계승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세대를 넘어 지속됨을 보여준다. Gordon Wenham 은 이러한 언약의 계승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 사이의 대조를 드러낸다고 해석한다.⁴⁴

4. 야곱의 변화를 통한 사랑: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강조한다.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압목 강가에서 씨름한 후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창 32:28). 이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⁴⁵ Walter Brueggemann 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해석한다.⁴⁶

D. 요셉 이야기를 통한 섭리적 사랑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이 인간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 고난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

⁴²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Eerdmans, 1990), 225.

⁴³ Brueggemann, *Genesis*, 130.

⁴⁴ Mathews, *Genesis 1-11:26*, 143.

⁴⁵ von Rad, *Genesis*, 158.

⁴⁶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130.

1.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창 50:20)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⁷ Kenneth Mathews 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한다.⁴⁸

2.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랑: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창 45:5).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화해와 용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는 중요한 사례이다.⁴⁹ Terence Fretheim 은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관계에서 구체화하는 모델이 된다고 해석한다.⁵⁰

3.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 요셉의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보여준다.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승격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기적인 안위를 넘어 장기적인 구원과 축복을 위해 작용함을 보여준다.⁵¹ Victor Hamilton 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에도 작용함을 강조한다.⁵²

4. 고난을 통한 성장: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이 개인의 영적, 인격적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우고, 결국

⁴⁷ Kaiser Jr., *The Promise-Plan of God*, 185.

⁴⁸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1, 199.

⁴⁹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205.

⁵⁰ Kwame Bediako, *Theology and Identity: The Impact of Culture upon Christian Thought in the Second Century and Modern Africa* (Oxford: Regnum Books, 1992), 178.

⁵¹ Brueggemann, *Genesis*, 190.

⁵² Norman C. Habel, *The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8.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Walter Brueggemann 은 이를 '고난을 통한 변혁'의 과정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이 경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⁵³

⁵³ Sandra M.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1), 43.

IV. 이야기로 쓴 창세기

1. 세상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와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며, 육지 위에 풀과 나무와 각종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계절과 날들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모든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바로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합니다.

2. 인류의 타락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 두시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브를 유혹하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이브는 그 말을 믿고 열매를 따 먹었고, 아담도 이브의 권유에 따라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죄의 대가로 고통과 죽음을 주셨습니다. 이브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주셨으며, 결국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타락이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아벨은 그의 양 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큰 분노에 사로잡혀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들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저주하여 그가 평생 동안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과 그 결과가 얼마나 깊이 인간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은혜를 나타냅니다.

4. 노아의 방주

인류가 변성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며 40 일 동안 비가 쏟아져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았고, 물이 빠진 후 노아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며, 그분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5.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은 변성하여 동방의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흠어지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으며, 그들은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뜯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탑은 바벨탑이라 불리며,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인간을 흩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6.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그를 부르시어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났으며,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따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7. 이삭의 탄생과 시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늙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그의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층 더 깊어졌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권리를 가졌으나, 야곱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에서가 팔죽을 찾았을 때, 야곱은 팔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를 두려워한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며, 그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여러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압북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 야곱의 믿음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9. 요셉 이야기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은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형제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자신이 형제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했으며,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만형 르우벤의 중재로 그를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고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중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 덕분에 풀려나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훗날 바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꿀 때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임을 예언하였고, 그에 따라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흉년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흉년이 닥치자 요셉의 가족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 자신을 밝히고, 그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요셉의 지도 아래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0. 이스라엘의 이집트 정착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센 땅에 머물며 번성하였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번성하며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정착은 출애굽기의 서막이 되는 사건이며, 이후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주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V. 현대 사회에서의 기독교적 응답

A. 개인적 신앙 경험의 중요성

본 연구는 저자의 개인적 신앙 경험, 특히 이민 생활과 암 투병의 과정을 창세기의 메시지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창세기의 메시지가 개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1. 이민 생활 속에서의 신앙 성장: 저자는 1984 년 미국으로 이민한 후, 신앙을 다시 찾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여정과 유사한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창 12:1-4). 저자의 이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는 창세기의 언약 신학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이다. Jung Young Lee 의 "경계인 신학"⁵⁴은 이러한 이민자의 경험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 암 투병과 신앙의 심화: 저자는 암 투병 과정에서 옴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는 요셉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과 유사하다(창 50:20).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⁵⁴ Lee, *Marginality*, 22.

있음을 보여준다.⁵⁵ Walter Brueggemann의 "현실화" 개념⁵⁶은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3. 목회 경험과 창세기 해석: 저자의 40년 이민 역사의 경험은 창세기의 메시지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이민자 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은 창세기의 언약 공동체 개념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Sandra Schneiders가 제안한 "경험과 텍스트의 상호작용" 모델⁵⁷은 이러한 목회 경험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B. 창세기의 현대적 적용

창세기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특히 창조 신앙, 언약 사상, 용서와 화해의 주제를 현대적 문제와 연결시켜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1. 창조 신앙과 환경 보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의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으로, 청지기 직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⁵⁸ Norman Habel의 생태학적 해석⁵⁹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환경 윤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회는 환경 보호 운동에

⁵⁵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125.

⁵⁶ Walter Brueggemann, *The Practice of Prophetic Imagination: Preaching an Emancipating Wor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65.

⁵⁷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67.

⁵⁸ Habel, *The Earth Story in Genesis*, 130.

⁵⁹ Hahn, *Kinship by Covenant*, 145.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언약 사상과 공동체성 회복: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⁰⁵⁹. Scott Hahn의 언약 신학⁶¹⁶⁰은 이러한 언약 사상이 어떻게 현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 용서와 화해의 실천: 요셉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⁶¹.⁶² Miroslav Volf의 "배제와 포용" 개념⁶³⁶²은 요셉의 용서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갈등 해결과 화해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갈등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회적 화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고난과 성장의 신학: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이 개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⁶³.⁶⁴ Paul Tillich의 "궁극적 관심" 개념⁶⁵⁶⁴은 이러한 고난의 경험이 어떻게 더 깊은 신앙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⁶⁰ Williamson, *Sealed with an Oath*, 210.

⁶¹ von Rad, *Genesis*, 163.

⁶² Volf, *Exclusion and Embrace*, 220.

⁶³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290.

⁶⁴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180.

⁶⁵ Bediako, *Theology and Identity*, 235.

있는지를 설명한다.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영적 성장 세미나를 개발할 수 있다.

5.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타문화 속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타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⁶⁵. ⁶⁶ Kwame Bediako의 "문화와 신학" 연구⁶⁷⁶⁶는 이러한 성경적 모델이 어떻게 현대의 다문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선교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⁶⁶ Brueggemann, *Genesis*, 210.

⁶⁷ Mathews, *Genesis 1-11:26*, 190.

VI. 결론

본 연구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였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 언약을 통한 신실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실현되는 섭리적 사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신앙 생활에 깊은 교훈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창세기의 신학적 의의: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인류 구속사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창조 이야기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나며, 이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신앙의 근거를 제공한다^{67, 68}.

2.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행위, 타락 이후의 은혜, 족장들과의 언약, 그리고 섭리적 구속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68, 69}.

3. 개인적 경험과 성경 해석의 상호작용: 저자의 개인적 경험, 특히 이민 생활과 암 투병 경험이 창세기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성경 해석이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신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⁶⁸ Moltmann, *The Theology of Hope*, 202.

⁶⁹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215.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고난과 성경 이야기를 연결함으로써,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69, 70}

4. 현대 사회에서의 기독교적 응답: 창세기의 메시지는 현대의 환경 문제, 개인주의,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한다. 창조 신앙은 환경 보호와 청지기 직분의 실천을 강조하며, 언약 사상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요셉의 용서와 화해 이야기는 개인 간,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요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70, 71}

5. 목회적 적용: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목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 신학을 바탕으로 한 환경 보호 캠페인, 언약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 갈등 해결 및 화해 세미나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론적 교리가 아닌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71, 72}

A.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창세기의 메시지가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1. 창세기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 바벨탑 이야기(창 11 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 18-19 장) 등 창세기의 다양한 주제들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⁷⁰ Kaiser Jr., *The Promise-Plan of God*, 245.

⁷¹ Waltke, *Genesis*, 305.

⁷² Williamson, *Sealed with an Oath*, 190.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대의 기술 발전, 도시화, 사회 정의 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⁷².⁷³

2. 문화 간 비교 연구: 창세기의 메시지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창세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탐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의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비교 연구할 수 있다⁷³.⁷⁴

3. 창세기와 신약성경의 연결성 연구: 창세기의 주제들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창조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개념, 아브라함의 언약과 바울의 믿음 교리 등의 연결성을 탐구할 수 있다⁷⁴.⁷⁵

4. 목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방안 연구: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 교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설교, 성경 공부, 상담, 선교 등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창세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⁷⁵.⁷⁶

5. 창세기와 현대 과학의 대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현대 과학 이론(예: 진화론, 빅뱅 이론 등) 사이의 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신앙과 과학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⁷⁶.⁷⁷

⁷³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135.

⁷⁴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85.

⁷⁵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260.

⁷⁶ Volf, *Exclusion and Embrace*, 180.

⁷⁷ Tillich, *The Courage to Be*, 150.

B. 연구의 의의와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창세기의 메시지가 단순한 고대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창세기의 신학적 주제들이 저자의 개인적 신앙 경험과 결합되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성경 해석이 실질적인 신앙 생활과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주요 의의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경 해석학의 새로운 방향 제시: 본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성경 해석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성경 해석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성경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작업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77, 78}.

2.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환경, 갈등, 개인주의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할 수 있다^{78, 79}.

3. 목회 실천의 기초 제공: 본 연구의 결과는 목회자들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설교, 성경 공부, 상담 등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79, 80}.

⁷⁸ Lee, *Marginality*, 95.

⁷⁹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83.

⁸⁰ Hahn, *Kinship by Covenant*, 280.

4. 신앙과 삶의 통합: 본 연구는 성경의 메시지가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신앙과 삶의 통합을 촉진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실제적이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80, 81}

5.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본 연구는 성경 연구, 실천신학, 상담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학문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81, 82}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를 새롭게 읽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경이 단순히 과거의 문서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⁸¹ Habel, *The Earth Story in Genesis*, 175.

⁸²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1, 140.

참고문헌

- Augustine of Hippo.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New York: Newman Press, 1982.
- Beale, G. K.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Bediako, Kwame. *Christianity in Africa: The Renewal of a Non-Western Relig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5.
- Brett, Mark G.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2000.
- Briggs, Richard S. "Reading the Bible with the Church: A Practical Approach to Biblical Hermeneutics."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2, no. 2 (2018): 217-231.
- Brueggemann, Walter.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lated by John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48.
- Fretheim, Terence E.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Fretheim, Terence E. *The Book of Genesi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Habel, Norman C. *The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Hahn, Scott W. *Kinship by Covenant: A Canonical Approach to the Fulfillment of God's Saving Promis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Keller, Timothy. *Preaching: Communicating Faith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Viking, 2015.
- Lee, Jung Young.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McGrath, Alister E. *Science and Religion: A New Introduc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0.
- Middleton, J. Richard.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5.
- Moberly, R.W.L. *The Theology of the Book of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Root, Andrew. *The Pastor in a Secular Age: Ministry to People Who No Longer Need a Go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9.

Schneiders, Sandra M.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9.

Smith, James K. A.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6.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Zondervan, 2009.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Walton, John H.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7.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aco: Word Books, 1994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Wright, N. 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London: SPCK, 1992.

부 록

It is with great joy that we commemorate Reverend Kim Eun-bok's completion of his Doctor of Ministry degree in May 2025. Over the two decades of our acquaintance, Reverend Kim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qualities that make him an exemplary servant of Christ. His unwavering character, marked by faithfulness, reflects the essence of our Lord and provides a reassuring foundation for his leadership.

Reverend Kim's academic journey, culminating in his Doctor of Ministry degree, is a testament to his unwavering dedication. Despite managing several restaurants in the Keystone, Florida, area, he remained steadfast in his pursuit of knowledge. His commitment to his studies at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and Washingto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rom 1996 to 2015 is truly inspiring and sets a high standard for us all.

I met Reverend Kim as a student and a faculty member during his academic journey at WUV and NTJS. His passion, diligence, endurance, and humility endeared him to everyone. He took classes continually for nine years and attended summer and winter intensive classes, even though he had to fly every time. He was a dedicated student who really wanted to serve the Lord!

Reverend Kim's respect for his instructors and peers is a reflection of his character. He consistently demonstrated respect and fostered an atmosphere of poise and calmness in his relationships. His humble demeanor, warm aura, and grounded nature

made him amicable, enhancing the learning environment for his classmates and making them feel respected and valued.

Reverend Kim's ministry commenced as an evangelist at Keystone Baptist Church in Florida in 2001. His dedication and commitment were quickly recognized, culminating in his ordination as a pastor in 2006. He served as an education pastor from 2007 to 2008, transitioned to co-pastor in 2009, and ultimately assumed the senior pastor role in 2010. Reverend Kim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Interdenominational Church Association and the Florida Baptist Association, among other positions. Currently, he serves Korean populations near Keystone as the representative of Tamla by Korean Community, which provides diverse help like college scholarships, senior citizen wellbeing, etc.

It is a privilege to have crossed paths with him on my faith journey. He has become a dear friend of mine. His sermons emerge authentically from his earnestness, practical wisdom, and profound love for the Word of God. Even now, I occasionally receive his preaching, which always leaves a lasting impact due to his sincere faith in and dedication to the gospel.

Notably, Reverend Kim has served an extended period with a single congregation. The Lord's steadfast presence has guided him through every trial. I believe his ever-calm and steady character also contributed to the harmony of the congregation. Reverend Kim's vision for global missions is inspiring. He actively supports pastors in rural churches in South Korea and extends his care to small congregat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is outreach encompasses various regions, including Africa, Haiti,

Vietnam, the Philippines, and Mexico, exemplifying his commitment to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Reverend Kim has been blessed with a devoted and prayerful partner throughout his ministry: his loving wife and children. As Reverend Kim embarks on this new chapter with his Doctor of Ministry, we eagerly anticipate how God will continue to utilize him for His glory.

With warm regards,

Peter M. Chang, Ph.D.

President,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Neal T. Jones Seminary

찬 하 사

김은복 목사님이 2025 년 5 월 사역박사 학위를 수료하신 것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가 알게 된 20 년 동안 그분을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종으로 만드는 자질을 꾸준히 보여주셨습니다. 충실함이 돋보이는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은 우리 주님의 본질을 반영하며 그분의 리더십에 안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김 목사의 학문적 여정은 사역박사 학위로 정점을 찍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플로리다 키스톤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식 추구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1996 년부터 2015 년까지 워싱턴 침례대학교와 워싱턴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의 헌신은 진정으로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학생이자 교직원이었던 김 목사를 WUV 와 NTJS 에서 학업 여정 중에 만났습니다. 그의 열정과 근면함, 인내심, 겸손함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는 9 년 동안 끊임없이 수업을 들었고 매번 비행기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겨울 집중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헌신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강사와 또래 친구들에 대한 존경심은 그의 인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존경심을 드러내며 관계에 있어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아우라, 근거 있는 성격으로 인해 그는 우호적이었고, 반 친구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존중과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의 사역은 2001 년 플로리다 키스톤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헌신은 빠르게 인정받아 2006 년 목사 서품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7 년부터 2008 년까지 교육목사로 재직하다가 2009 년 공동목사로 전환한 후 2010 년 담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파 간 교회협회 회장과 플로리다 침례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키스톤 인근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학 장학금,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탐라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서 그와 함께 길을 건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간절함, 실천적 지혜, 심오한 사랑에서 진정성 있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가끔 복음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 항상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그의 설교를 받습니다.

특히 김 목사님은 한 신도와 함께 오랜 기간 봉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모든 재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끊임없이 차분하고 꾸준한 성품도 신도들의 화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선교에 대한 김 목사의 비전은 고무적입니다.

저는 이 탐과 지역에서 새빛 교회를 설립하여 30 년 목회를 하고 본 교회에서 은퇴한 새빛 교회의 원로 목사입니다.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근거리에서 김은복 목사를 보아 왔고,이민 생활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의 모든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입니다.

김은복 목사는 같은 침례교회 목사로서,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에서 실행위원으로 교단을 위해 수고하셨고, 지방회 (플로리다 침례교 협의회)에서도 회장으로

선출되어 흠어져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며, 선 후배 목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참 착하고 선한 주의 종입니다.

김은복 목사는 1984 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고,
개인 사업을 성실하게 하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후, 김은복 목사는 하나님의 강한 Calling 을 받고,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주
의 종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김세복 목사님이 키스톤 침례교회에서 시무할 당시, 전도사로 시무했으며
고 김세복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는,본 교회에서 전 교인의 지지로 전격적으로 목
사 안수를 받아 담임 목회자로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 후 목양일념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신
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종으로, 출 퇴근을 정확히 지키며, 교회에서 항상
교인들 상담을 열어 놓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실한 주의 종입니다.
김은복 목사는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인들과
이 지역 교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진실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선교지를 후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이라 믿어집니다.

김은복 목사는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중,
우물을 파 주는 사역으로 현지인들의 목마른 식수 사정을 해결해 주므로 예수 사랑
을 전하며, 아프리카의
지역에는 교회 건축 사업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은복 목사는 탐파지역에서도 한인 봉사 센터를 신설하여 교민들이 언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여러 문제들, 의료 문제, 생활 보장 문제등, 특히 한인노인들의 각가지 Social 문제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매년 교포 자녀들 중에 우수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돌아볼줄 아는 마음이 열린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으로 교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한 주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4 년 이후, 40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했던, 김은복 목사를 칭찬합니다.

탐파 새빛 교회 원로 목사 : 오승일

오병이어의 나눔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I. 서론

요한복음 6 장 8-9 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 광주리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나눔이 단순한 물질적 분배를 넘어서 신앙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개인적 경험: 나눔의 은혜

저는 10 대 후반, 시골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길에 광주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앞에는 20 대 중반의 젊은 신혼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매우 느렸습니다. 오늘날의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아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완행열차였습니다. 그때 저는 열차 안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열차 안에서 “김밥이요, 김밥!”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김밥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 있던 젊은 신혼부부가 김밥과 음료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고 있는 김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를 눈치채고 자신들이 먹던 김밥 반 줄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건네준 김밥 반 줄을 받아 먹은 기억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50년이나 흘렀지만, 그때 받은 김밥 반 줄의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의 따뜻한 나눔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날 제 목회와 선교 활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III. 성경적 관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신앙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한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작은 음식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운 기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 엄청난 기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 영적인 은혜까지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눔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눔은 그 자체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IV. 나눔의 영향력: 나눔이 가져온 변화

열차 안에서 젊은 부부가 나에게 건넨 김밥 반 줄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 세계 불우한 이들을 섬기는 선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25년간 음식업에 종사하며 고객을 섬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목회 철학도 자연스럽게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아이티(Haiti) 구호 사역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후 2015년에는 그곳에 우물 선교와 교회 보수 공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사역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교육

사역, 필리핀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교회를 짓는 사역, 한국의 농어촌 교회를 돕는 사역 등 다양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동기는 50년 전 열차 안에서 경험한 김밥 반 줄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감동을 바탕으로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V. 결단의 말

나눔과 베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을 통해 이를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먹어도 부족할 수 있었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배가 불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 열차에서 받은 김밥 반 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의 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 이웃을 위한 나눔의 덕이며, 이를 통해 세상에 사랑이 싹트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VI. 나눔의 지속성과 영향

나눔은 단순히 한 순간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밥 반 줄을 받은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영향이 확장됩니다.

나눔의 지속적인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눔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나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이 이웃에게 기적과 같은 힘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진정한 힘은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도 지속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VII. 나눔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과 평화

나눔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제게 김밥을 나누어 준 신혼부부는 그들이 나눈 음식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고픈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순간 작은 기쁨과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나눔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듯이, 나눔은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저 또한 목회와 선교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티에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이나 멕시코에서 교회를 짓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 사랑, 배려 등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자선이나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 나눔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VIII. 나눔의 소명: 우리 모두의 책임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사건이 아니라, 나눔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눔의 소명은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려면, 나눔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단순히 예배와 교리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눔도 하나님께 드릴 때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IX. 나가는 말: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나눔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단지 물질적 나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눔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나눔의 사명을 잊지 말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으며,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눔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세상에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김은복 목사님의 미국 이민 40 년 역사

1. 꿈을 크게 가지라: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삶

(시편 81:10)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인생에서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는 1984 년 7 월 28 일, 한국을 떠나 미국 시카고에 도착하여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탬파에 살고 있던 누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필자를 포함한 일곱 명의 가족이 이민 가방을 들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의 첫걸음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필자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플로리다 전체 땅은 내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기도 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필자가 첫 번째로 얻은 직업은 중국집에서 그릇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기보다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년 후, 탬파에서 최초의 한국 식당을 열게 되었고, 그 이후 한식, 중식, 일식 등 여러 요리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5 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고객을 섬기는 데 집중하였고, 사업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필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로의 전환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낮에는 사업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는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며 신학을 공부하였고, 결국 전도사가 되었으며,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필자는 인생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영혼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필자도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인내와 꿈의 실현

인생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필자는 미국에 와서 처음 그릇을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방장이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인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요리를 실습하고, 주방에서 주방장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필자는 ‘뉴 서울 하우스’, ‘킴스 레스토랑’, ‘리 다이나스티’, ‘To Mo Sushi’, ‘Johnny’s Sushi’ 까지 다양한 요식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듯이, 필자 역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였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4.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필자는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물질적 성공을 목표로 삼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필자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필자는 목회자로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5.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필자는 이민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권총 강도를 당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집과 건물을 잃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교회 건물 신축을 시작했지만, 75만 달러의

부채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2009 년 1 대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필자는 2010 년 1 월 10 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 부채를 갚아 나갔고, 마침내 2022 년 35 주년을 맞이한 지금, 교회는 부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암과의 싸움: 믿음의 시험

최근 필자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고, 폐에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과의 싸움 속에서도 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자는 과거에 암 환자들을 심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에게 암을 주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필자는 암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암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필자는 암을 이겨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7. 결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민 생활 40년을 돌아보며,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자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자와 함께하셨고, 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바칠 것입니다.

김은복 목사의 창세기 본문 설교문

설교문 1: “창조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26-31)

서론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의미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외형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진 존엄성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창조적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존엄성과 책임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26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시대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존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용: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창세기 1:31)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자연,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우리가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합시다.

3.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명: 청지기직

창세기 1:28 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한 권력 행사나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사랑으로 돌보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을 돌볼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습니다.

청지기직의 의미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실천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결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설교문 2: “타락과 회복: 죄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1-15)

서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 죄와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 유혹과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창세기 3:1-6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욕망을 우선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죄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적용: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그분의 뜻을 신뢰합시다.

2. 죄의 결과: 관계의 파괴와 두려움

타락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창세기 3:7-10). 이는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를 두려움과 수치 속에 빠뜨립니다.

죄의 영향: 인간 관계의 파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파괴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서로를 탓하며 관계가 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는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화해보다는 분쟁을 초래합니다.

적용: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의 구속 계획: 원시 복음(창세기 3:1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인류의 구속을 예언하는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속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적용: 우리는 이 구속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

타락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창세기 3 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문 3: “타락 이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여정” (창세기 3:20-24)

서론

늘의 본문인 창세기 3 장 20 절에서 24 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은혜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들을 위한 회복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창세기 3:21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를 덮기 위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죄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질 것을 예표합니다.

적용: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 에덴에서의 추방: 고통 속의 소망

창세기 3:23-24 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추방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고통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적용: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3. 회복의 약속: 구속의 여정이 시작되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이 향한 길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속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은 에덴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여정: 회복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속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그 회복의 여정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적용: 우리는 이 구속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결론

창세기 3 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으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문 4: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1-9)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2 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2:1 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믿음의 여정과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떠났을 때 그의 삶이 곧바로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바로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근과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인내와 성숙

아브라함은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적용: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창세기 12:7-8).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었고, 그분께 대한 헌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에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삶의 헌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이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적용: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문 5: “형제의 갈등과 하나님의 정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1-16)

오늘 우리는 창세기 4 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형제 간의 갈등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살펴보려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을 넘어,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 두 형제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부와 목자로서 각자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창세기 4:3-5).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렸으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본질: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2. 가인의 죄: 시기와 분노에서 비롯된 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자 가인은 형제를 시기하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고하시며, “죄가 네 문에 앞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4:7).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죽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쉽게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유혹과 결과

가인은 분노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며, 그의 죄로 인해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적용: 우리의 마음 속에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결과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3.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심판과 보호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떠돌이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창세기 4:15).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가인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그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하셨으나, 그에게 생명의 보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적용: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형제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설교문 6: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6:9-22)

오늘 우리는 창세기 6 장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의로운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6:5-7 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그 결과로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대홍수는 인류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도 절대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노아의 순종: 구원의 방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였습니다(창세기 6:9).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중요성

노아의 순종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용: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3.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으며, 대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창세기 9:12-17).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결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그 결과 그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Eun Bok Kim

Place and Date of Birth: Jellananm-do, South Korea, November 11, 1960

Parent's Names: Maeng Deuk Kim and Kum Rye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American Academy High School 10300 SW 72 nd , Miami, FL 3317, USA	Diploma	Jan 20, 2004
Collegiate: Baptist College and Seminary Washington 7100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USA	B. Th.	Mar 27, 2006
Graduate: Baptist College and Seminary Washington 7100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USA	M. Div	May 925 201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Eun Bok Kim

Name typed

February 15. 2025

date